

‘우리 모두의 5·18’ ... 국민통합 원동력 삼아야



5·18 전야제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5월 263명 확진

코로나19 급속도로 확산

광주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

순천 나이트클럽-여수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 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이달 들어서만 전남에서 26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월요일인 17일 전남에서는 주말·휴일 검사량 감소 여파로 신규 확진자는 2명에 그쳤다.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해외 유입 87명을 포함해 1318명이 됐다. 이날 나주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전남 1317번)의 감염이 확인됐고, 해남에서는 봄철 배드민턴리그전에 참여한 선수(1318번·김천대학교)가 확진돼 대화가 취소됐다.

전남에서는 이달 들어 확진자가 급증했다. 1318명의 누적 확진자의 20%에 해당하는 263명(해외유입 4명 포함)이 5월 들어서 발생했다. 확진자 폭증에는 여수 유흥업소, 순천 나이트클럽 집단·연쇄 감염이 원인이 됐다. 여수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와 순천 나이트클럽 확진자는 각각 58명, 46명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5월 1일과 3일, 9일, 17일을 제외하면 매일 두자릿수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고, 지난 13일에는 하루동안 무려 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동량이 많은 5월 유흥시설에서의 집단·연쇄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이 있는만큼, 밀폐된 시설을 피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광주에선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산구 모 교회 관련 1명, 서구 지인 모임 관련 1명, 기존 확진자 관련 2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2명 등 모두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2632명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3명, 남구 식품 유통회사 관련 2명, 광산구 소재 교회 관련 1명, 광산구 가족 모임 관련 4명, 서구 동료·지인 모임 관련 5명, 남구 소재 초등학교 관련 4명, 조사중 6명 등 27명이 발생했다.

광주에선 최근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28명, 광산구 종교시설 관련 10명, 남구 식품 유통회사 관련 13명, 서구 동료·지인 모임 관련 8명, 광산구 가족 모임 관련 5명, 남구 초등학교 관련 7명 등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있던 유흥업소 집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기간을 19일까지로 사흘 연장했다.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유흥접객원 소개업소 등 종사자다. 시는 5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유흥업소 종사자 중 이날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종사자가 3000여명(양성 12명, 음성 1998명, 진행 중 1048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추가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두의 오월임을 알리고 5·18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통한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게 보훈처 계획이다.

기념식은 현화 및 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의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경과보고는 김영훈(사)5·18민주화운동 유족회 회장이 맡고 기념공연에는 고(故) 전재수 군과 고(故) 박용준 열사의 사연을 담은 영상과 비올라 5중주의 '바위섬' 추모 연주, 5·18이 미얀마 등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표라는 영상 등이 상영될 예정이다.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 참가자인 바리톤 김주택과 합창단 시함무(시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배우들)가 가수 송창식의 노래 '우리'를 합창하고 참석자 전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지난해 마련된 '5·18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법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5월 단체 내부 갈등으로 공법단체 출범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 제41주년 기념식...여야 의원·잠룡 등 대거 참석 발표책임·헬기사격·암매장 등 진상규명에 힘 모아야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 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다. 이번 기념식은 광주의 오월 정신이 현대를 사는, 그리고 미래를 이끌 젊은 세대들의 일상 속에게 오롯이 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관련기사 2·3·6·7·16면>

특히 이번 41주기 동안 여야 대권 잠룡을 비롯한 당 지도부, 초선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광주행에 이어가면서 이번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계기로 국민대통합의 한마당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월 유족회가 처음으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추모제에 정식으로 초청하는 등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국민의힘이 이에 화답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 41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5·18 진상규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0년 당시 군부의 실세였던 전두환과 노태우,

정호용씨 등이 모두 90대가 되면서 이들이 사망할 경우 5·18 진상규명이 미완으로 남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진상규명 범위는 당시 인권침해 사건, 군에 의한 발표 경위 및 책임 소재, 헬기 사격 사건,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희생자 암매장 등에 관한 사건 등 12개에 이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인사, 각계대표, 학생 등 99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 측 대표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기념식은 '우리들의 오월'이라는 주제로, 41년 전 광주의 오월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

위덕대 학생들, 5·18 망언 스승 대신 사과 ▶6면

굿모닝 예향 - 싸목싸목 무안 한바퀴 ▶18·19면

타이거즈, SSG·삼성과 힘겨운 6연전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친환경 미래자동차 선도도시 광주

- 자동차산업 전용단지 조성
- 선도기술지원센터 및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 친환경차 관련 핵심부품 기술개발,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 노사관계·적정임금·노동시간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